

# 하도레 선교사 은퇴 기념 논문

\* 이하 하도레 선교사 논문 3편 및 회고문 전재

## 문화는 신앙을 설명한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시대, 검소, 절약이 희박해졌으며, 진리에 이르는 길도 희미해지며, 헌신과 가르침의 목적인 신앙은 모두 더럽혀져 버렸다. 이러한 현상들은 세상이 침몰되고 있다는 표지들이다.

이 말은 시크교의 창시자 구루 나낙 (Guru Nanak)의 말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뭔가를 해 보려고 하였다.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인도의 전체 국민의 2%에 해당되는 소수 종교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힌두교 대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2%밖에 되지 않는 그들은 인도 사람들이 필요한 식량의 70%를 생산하였다. 잘 운영되고 있는 그들의 농장을 찾는 방문객은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실감할 수 있다. 인도의 군대 내에 장교들의 30%가 시크교도들로 전해지며 그들은 신뢰와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추앙받고 있다.

이처럼 종교가 문화와 사회 제도 및 관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다윗과 솔로몬의 치하에서의 유대인들은 이웃 나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들이었는가? 그들이 열방의 조소거리가 되고 사방에 흩어져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하지매 나카무라(Hajime Nakamura)는 불교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자랑하고 있다.

종교적인 열정의 진전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들은, 불교가 티벳이나 몽고족의 독특한 잔인성의 모습들을 거의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과격한 용사들을 부드럽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일

본에서도 불교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살인이나 다툼의 경우들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현상은 기독교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포악한 바이킹 족속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유순해졌다는 사실이다. 과연 그들은 지금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주전 265년경부터 238년까지의 인도의 마우리안(Mauryan) 왕조의 불교 신도 황제였던 아소카(Ashoka)는, 즉위 8년째에 피비린내나는 잔혹한 전쟁을 치룬 후, 그의 잔악성 때문에 비통해 하였다. 그리고 달마(Dharma)에 의하여 불가침 의지를 선언하였다. "달마"라는 말은 정직, 진실, 사랑, 자비, 호의, 비폭력 모든 것에 대한 신중한 행동, 사치하지 않음, 욕심 내지 않음, 동물을 해치지 않음 등에 대한 사회 도덕적인 미덕의 강력한 실행을 의미하였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농촌 지역을 빈번히 방문하여 서민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꾸준한 경각심, 그리고 정의의 신속하고 공평한 분배를 촉구하였다. 그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위하여 병원들을 설립하였고, 물 마시는 곳과 쉬어갈 수 있는 처소들을 마련하여 주었다.

주로 인도 봄베이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조로아스터교는 위에서 언급된 시크교도들과 같이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소수 종교 집단의 다른 예이다. 비록 그들은 수 세기 전에 모국인 페르시아 지역에서 박해를 받아 피난해 왔을지라도 그들은 부자가 되어 꽤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또 강력하고도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유지하였다. 그들의 진취적인 힘은 인도에 있어서 원자 에너지를 연구하는 단체 중 최초의 단체가 이같은 작은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된다.

## 기독교에 대한 평가와 세계에 미친 기독교의 문화적 영향

불란서 혁명의 가공할 만한 여파에 있어서, 채토브리앙(Chateaubriand) 자작(子爵)은 그의 불신앙적인 생활들을 바꾸라는 어머니의 죽어가는 간청에

1) Kenneth Morgan(편집), *The Path of Buddha*, "불교에서의 연합과 다양성" (New York, The Ronald Pres, 1965), P.387.



의하여 회심하였다. 그는 “기독교의 정신과 미”<sup>2)</sup>라는 부제가 딸린 「기독교의 진수(The Genius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다(이 책은 아주 뛰어난 책으로 2년 만에 7판이나 발행하였고 이태리어, 독일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번역되었다). 기독교의 변증학적인 이러한 비범한 형태는 믿음에 대한 뛰어난 변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과 몇 가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어거스틴은 Ps. L1, 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우리의 뿌리가 그곳에 있게 하라.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는 보여질 것이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열매들은 우리의 행실들이다. 당신의 행위는 사랑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의 뿌리는 살아 있는 땅에 박혀 있는 것이다.

채토브리앙의 책을 번역한 차알스 화이트(Charles White)는 변호의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교적인 신앙의 위대한 원리들이 무시되어질 때, 시대의 권위가 무시되어질 때, 기독교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외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기독교에 대한 변호를 취하는 것은 쓸모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진보에 있어서 기독교는 심각한 장애물이었다는 생각에 현혹되어버렸다. 기독교 교리들은 불합리하고, 의식들은 역겨운 것들이었다.

기독교는 정신을 속박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술과 과학을 반대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했다 ... 인간의 본능과 뛰어난 조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고상한 영향, 사회에 끼치는 이로운 영향들, 문명의 발전과 열국의 복지를 위해 이루어 놓은 업적 등을 보여 주어야 했다 ...<sup>3)</sup>

2) Charles I White(역자)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1857)

3) Ibid., Preface, P. 7.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하여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는 크게 아탈된 색다른 방법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그 자체도 일리가 있다고 믿으며,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변증학이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공격과 부정하는 것에만 목적으로 한 시대에서는, 기독교는 거리에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책이나 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투쟁은 권리를 위한 매일의 다툼에 있어서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든지, 빠져 있든지 간에 점점 상실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현재 신자인 차알스 콜슨(Charles Col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 시민의 삼분의 일이 중생한 성도라고 하면서 날마다 병들어 가고 더욱 부패해 가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역설이다. 기독교는 향상되나 도덕성은 떨어지고 있다. 교회가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서서 행동하는 것을 실패할 때 교회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실패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칼 헨리(Carl Henry)가 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한 장엄한 증인으로서' 세상을 대항하는 대신에 세상처럼 되어버렸다.<sup>4)</sup>

필자는 한국 교회 역시 동일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확신한다. 동시에 서구 교회에서보다도 한국 교회 안에는 콜슨의 주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가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필자는 장래를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한 존 헌트 여사는 칼 헨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장로회지(Presbyterian Journal)에 게재했는데 그 기록 일부를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에 고무적인 대화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앉

4) J. I. Packer의 자유와 권위 Grand Rapids: Eerdmans)의 서문에서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1981.



았다. 존(그녀의 남편)은 헨리 박사에게 오늘날 기독교계에 대한 그의 평가를 물었다. 그는 답하기를 '오늘날 교회에 대한 가장 슬픈 평가는 우리의 문화에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 말하였다.

헨리 박사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꼭 다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정부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여론을 형성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가치를 신중히 생각함이 없이 세속적인 목표만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비록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더욱 납득되며 받아들여지겠거니와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다.

선교사이며 선교학자인 J. H. Bavink는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경고하였다.

우리를 숨막힐 정도로 위협하는 우리 문명의 당혹스러운 점들이 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된 주된 원인(여기 줄 그은 것은 강조하는 의미로 필자가 한 것임)은 명백히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무시해 왔다는 데 있다.<sup>5)</sup>

이 말은 기독교가 세상에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에 와서 콜슨과 칼 헨리 박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복음주의가 신장하고 있는 요즈음에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이 비참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5) J. H. Bavink, *The Church Between Temple and Mosque*(Grand Rapids: Eerdmans), p. 23.

## 종교, 윤리 및 문화적인 활동

문화의 모든 면은 종교적 근원으로부터 유래한다.<sup>6)</sup>

문화란... 우주와 불가시적인 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sup>7)</sup>

다른 종교들의 윤리와 문화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배경을 평가하는 한두 가지 예를 간단히 조사해 보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히말라야 남쪽의 일원론적 염세주의를 북쪽의 일원론적 낙관주의와 비교하였다. 용이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중국 사람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실현되어지는 신국(神國)을 기대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 그러나 중국인의 경건함은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력(自然力)의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 안에서 우리가 믿고 붙드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속성을 명상하는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은 종교에로 이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적어도 중국인 철학자들이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들은 세상에서 작용하는 자연력들을 이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윤리적인 특성을 기술하였다. 그들이 실재를 과감히 맞서게 됨에 있어서 그들은 종교에 가서는 희미한 불꽃으로 축소되기까지 윤리의 심지를 낮추어야만 했다.<sup>8)</sup>

또 하나의 예는 인도의 국교인 힌두교와 관련하여 한 경지에 달한 인도 학자인 차우드후리(Nirad C. Chaudhuri)의 평가이다. 어떤 사람들은 차우드후리가 지나치게 자기 민족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가

6) *Ibid.*, p. 21.

7) *Ibid.*, P. 22.

8) Albert Schweitzer, 기독교와 세계 종교(London:Geo. Allen Unwin, Ltd, 1923), pp. 58 이하



요, 저널리스트요, 학자로서 그는 신임도가 두터운 사람이다. 그의 글은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며, 노숙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힌두교에 대한 세속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힌두교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배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세상적인 번영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힌두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다. 사실, 종교는 세상을 위한 것이며, 종교 안에 세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동시에 세상은 또한 종교를 위한 것이다. 이 둘은 분리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힌두 사회에 있어서 모든 세속적인 활동은 종교의 지배하에 있으며, 종교적인 모든 것은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sup>9)</sup>

신들과의 그들의 관계성, 이와 관련하여 차우드후리는 '상호 협력적인 계약'으로 기술하였다. 즉, 얻고자 하는 두 공동체 사이에 있는 사회 계약이라는 것이다.<sup>10)</sup> 그는 힌두교의 예의와 관습에 관한 그의 유명한 글에서 아베 두보이스(Abbe Dubois)의 관찰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우상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힌두교인들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며 가장 심한 모욕을 퍼붓는 힌두교도들이다. 또한 차우드후리는 신의 권능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우주의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는 어떤 면에서든지 그들의 종교나 신들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말해질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힌두교의 신들은 그들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종교로부터의 유익은 도덕적이며 비도덕적인 모든 목적을 찾는 것이다.<sup>11)</sup>

9) Nirad C. Chaudhuri, 힌두교 New Delh : B i. Publication 1979), pp. 9 이하

10) *Ibid.*, p. 14.

11) *Ibid.*, p. 15.

##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 몇 가지 고찰

이제 우리는 주목 받는 철인이요 초대 인도 대통령이었던 S. Radhakrishnan은 그의 책 「라빈드라나스 타고르 (*The Philosophy of Rabin-dranath Tagore*)」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한 위대한 힌두교도 시인에게 나타난 것으로서 문화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평가를 들어 보도록 하자.<sup>12)</sup>

라빈드라나스는 자신이 서구에 팽배해 있는 사회적 봉사 정신에 의하여 큰 감명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의 영감입니다.'고 하였다. 그는 오직 법, 질서 및 자유에 대한 서구적 이상들을 찬양할 뿐이다.

서구 사회를 이룩한 기초는 사회적인 풍습보다도 더 깊이 박혀 있으며 서구 사회의 활동 영역은 과히 세계적인 것이다... 유럽은 우리에게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한 일들보다도 먼저 공공 이익을 위한 책임이 더 높은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또 변모해 가는 사회의 독립성을 이룩하는 법의 신성함이 계속적인 진보를 확실히 하며,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은 순교와 성취의 역사를 통하여... 양심의 자유, 사상과 행동의 자유, 예술과 문학의 이념들에 있어서 자유를 성취하는 투쟁의 역사를 통하여 높은 자유의 가치를 부여잡았다.

기독교는 모든 진실한 종교가 그런 것처럼 이기적인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원수이다. 자유의 신장을 위한 기독교의 가장 큰 공헌은 인간 개성의 무수한 가치 위에 나타나는 실례들이다. 기독교는 개인의 가치를 선언한다. 그리고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신봉하며, 팽창의 정책을 완고히 배척한다.

이제 우리의 정신적 유산인 칼빈주의 문화에 대한 천주교 역사가들의 견해를 들어 보자. 크리스토퍼 도우슨(Christopher Dawson)은 칼빈과 칼빈주

12) S. Radhakrishnan, *The Philosophy of Rabindranath Tagore*( London : Macmillan Co., 1918), pp. 255~6 ; 282 ~3.



의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놀라게 한다.

…서구 민주주의의 뒤에는 칼빈주의와 자유 교회들(영어로 Free Church라고 불리우는 개혁주의 노선을 취하는 비국교파 교회들을 말함—역자주)의 정신 세계가 있다. 그 정신 세계는 우리가 어떠한 이의가 없이 서구 문명으로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우 커다란 영향을 지니고 있다.

칼빈주의의 가르침에도 인간의 의지나 다른 세상적인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염세주의나 또 신의 권능과 루터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독단조차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칼빈과 칼빈주의로 특정지어지는 도덕적 행동주의의 강렬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어졌다. 칼빈의 진가는 조직가요, 입법가요, 엄격하고 논리적이며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 진지한 행동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려는 의지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개신교를 감화시킨 것은 루터가 아니라 칼빈인 것이다.

이러한 신정주의적인 주장들은 중세 교회에서 찾아지는 것처럼 교권적이고 비인격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협동하는 기독교인들의 각 의무와, 선택의 확실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강한 개인주의에 기초되었다.<sup>13)</sup>

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의 영향에 관한 다른 정보로부터 남편들의 화장 장작더미에 그들 자신의 몸을 던지게끔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끔직한 관습을 중지하는 것, 카스트에 대한 투쟁, 유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 것에 대한 싸움(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도 비밀리에 종종 행해진다고 한다.) 등을 듣는다. 중국을 위한 선교사들의 영향은 무엇인가? 라토렛(Latourette)은, 이에 관한 긴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 목록은 가능한 모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와 병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한국에서도 찾게 되는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갖고 있는 관심은 이미 성취된 선한 것들을 역행하

13) Christopher Oawson, *The Judgment of the Nations* (New York : Sheed Ward, 1942), pp. 44~46.

고 있는 한국 교회의 흐름들을 경고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피터 패티슨(Peter Pattisson)은 최근에 쓴 그의 저서인 *Crisis Unawares* (OMF Books, 1981)-조만간 한국판이 번역될 것임-에서 이러한 많은 위험스러운 것들과 위기의 징조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칭찬하는 소리들 때문에 거의 들려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몇 가지 점을 대조하면서 그 상황을 요약하려고 한다. 필자는 한국 교회의 특징적인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매우 높이 여길 만한 점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상품들은 상표나 포장지 하고는 전혀 다르듯이 그 내용과 겉보기가 어느 정도로 같을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각성해야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 교회에 대한 칭찬이 사실과 전혀 다른 점을 너무 자주 목격한다. 필자는 선교사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로서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사역한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1. 한국 교회는 주는 교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것보다는 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일이 종종 강요되고 행하여지지 않는가?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즉 '이것을 하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저것을 하시오 그러면 은총을 입습니다.'는 것이다.

2.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러나 기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이기보다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닐는지? 너무나 자주 큰 것보다도 작은 하찮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나 세상을 위하여,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확장되며, 세상 모든 나라에서 막힘이 없이 사람들은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딤후 2:1~8)

3. 한국 교회는 가르치며 설교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단순히 어떤 목표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가? 응답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체의 뜻에 기초하는 삶의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모습들이 아닐까? 많은 지도자들이 참된 대화에 있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 27:17) 도우는 사려 깊은 친구들보다도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4. 한국 교회는 모이기를 좋아하는 모이는 교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중한 해석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들이 더 흔한 현상은 아닌지? 단순한 예배, 엄격한 삶, 그리고 섬김을 사랑하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보다 감정에 호소하고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것을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가 그토록 심하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지도력과 병행되는 모습이 있음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율법을 향한 열정을 자아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위장되어 있으며, 편협적이고 불균형적이며, 위선적이고 과상적이며, 형식주의적이고 또 사랑이 결핍된 자들임을 말씀하셨다. 심지어 그들이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하는 것까지도 비난하셨다. 따라서 오류가 없으신 그의 판단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5)고 하셨다.

필자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인자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경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기독교 문화를 생산해 냄으로써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며 조직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있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지성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고 감탄할 만한 열매들을 세상에 나타내 주고 있는가?

1909년 겨울에 아더 발포(Arthur Balfour)는 에딘버리에서 「열방을 묶는 도덕적 가치(The Moral Values white the Natldns)」라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 그는 그러한 문제들을 일반 지식, 상호 공통적인 관심, 외교적인 교제와 인간적인 우정의 연합이라고 불렀다. 그가 강연을 끝마쳤을 때, 그리고 청중



들의 박수 소리가 멈추었을 때 한 작은 질문 소리가 발코니에서 울렸다. “하지만 발포씨,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편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제국이었던 나라의 지도급 인사인 그가, 한 일본인 학생에 의하여 질책을 당하였던 것이다.<sup>14)</sup>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보내 주시기를 원한다. 또한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 기독교의 삶과 문화를 뿌리 내리는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참된 칼빈주의자들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실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만 한다(벧전 4:10).

교회로부터 순종의 불꽃이, 순수한 문화적인 성장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타올라야 한다.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만이 기독교 문화적인 삶과 관련해 볼 때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갈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다. 교회는 가장 위대한 간접적인 문화적 힘이 되어야만 한다.<sup>15)</sup>

## 알 림!

- 이번 「改革信仰」 제 11호는 한국 선교를 위해 반평생을 바치고 은퇴한 하도레 선교사의 노고를 기리고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뜻에서 그의 글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기사가 넘쳐 그가 보낸 글을 다 실지 못했으나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본지에 실을 예정입니다.
- 본지는 앞으로 필진이 구성되는 대로 약 100면으로 증면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가을·겨울 합병호는 임시 특가 1,500원입니다.

### 개혁주의신행협회

14) R.B. Kuiper가 쓴 *The Glorious Body of the Church* 에서 언급된 일화임.

15) K. Schilder, 그리스도와 문화 (Winnipeg ; Pemier, 1977), pp. 79, 81.